

## 군사적대행위를 종식시켜야

지난 6월 30일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에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줄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제안이다.

나라의 평화적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비록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고 그 분열이 근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런 합리유나 원인이 없다. 더우기 지난 1950년대초에 일어났던 한차례의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게 한 계기였다. 당시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북과 남은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

모처자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은 반세기 가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현실을 끝장내는 유일한 길은 평화적통일뿐이다.

이미 북과 남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지키는데 있다. 물론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기 해서 그것을 군사적대행위로써 해결할 수는 없다. 군사적대행위가 가져올것은 불신과 대결의 심화이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의 증대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북과 남이고 민족의 통일위협이다.

오늘 북남사이에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북남사이의 교류와 접촉들이 예견되고있다. 이러한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는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행

위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남조선당국이 올해 8월 미국과 함께 벌려져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제들도 다 그러하지만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은 평화통일원칙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고 잔혹한 위배행위인 동시에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또처럼 마련되었던 화해의 분위기가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파란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란다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1990년대초에 미국과의 《티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였던 전례도 있다.

만약 현 남조선당국이 올해 8월에 예견되어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짚는것으로 될것이다.

온 겨레가 금후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북의 특별제안 수용하고 실천으로 남북관계개선힬라》

남 조선 각 계가 주장

지난 3일 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7.4남북공동성명 42돐 남북관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리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들이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42년전 7.4남북공동성명에

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대원칙을 가슴에 새겨서 북의 특별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할것 바란다.》고 말했다.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41일 0시를 기해 상호비방중상징들을 제안하고 군사적대행위중지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북의 제안은 사실상 온 민족이 원하는 바이다. 7.4공동성명발표이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이후 10.4선언으로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본격적인 실천이 이뤄졌지만 오늘 이 모든 남북간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행

방이 묘연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북의 특별제안을 수용할것을 촉구하였다.

오현경 통일농사협동조합총괄사업본부장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거, 무장도발증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고방지합의는 7.4남북공동성명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남북사이의 다방면적계단교류를 실시하겠다는것 역시 당시의 합의사항》이라고 하면서 《북의 특별제안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리행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심양시 지부장 담화 발표

미국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4년이 된 것과 관련하여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 지부장 권현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6월 25일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조선전쟁도발의 원흉이며 우리 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

략자들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동원하였으며 전체조선인민을 멸살하고 조선반도를 타고았기 위해 세군무기를 사용하느 인자탄사용까지 획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여기에

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 60여년간 분렬과 대결, 전쟁책동에 더욱더 매달려왔다고 하면서 담화들은 미국의 최신전쟁장비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집결되고 《련합진성원연합습》,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대제로련훈련》 등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이 더욱 빈번하게 벌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한교줄을 이으며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근 70년세월이 흘렀다. 단순한 지리적개념에 불과했던 38°선이 국토분렬의 선으로 이 땅에 그어진 그 때에는 그 누구도 민족분렬이 이토록 오랜 세월 이어지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방대한 인적, 물질자원이 민족공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되지 못하였으며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그어진 분렬선을 경계로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충돌리를 마주하고 불신과 대결을 거듭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부모형제, 처자와 갈라지는 생리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봉의 꿈을 이루어보지도

##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분렬의 비극

못한채 계속 우리결을 떠나가고있다.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보려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절규하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던 남녘의 청년학생들, 《조국통일》을 웨치며 동족과 만났다는 단 한가지 리유만으로 남조선에서 손에 쇠고랑을 차야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인가.

반만년 역사국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하나의 강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아직까지 분렬되어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될수록 불행과 재난을 당하게 될것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숙원이고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이 더 크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지난 세기 70년대에 벌써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새 세기에 들어와 북과 남이 함께 내외에 엄숙히 선포

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를 조국통일의 근브리념으로 내세우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통일진군을 다그침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북 남 공 동 선 언 리 행 을 요 구 하 여 시 위 를 벌 리 는 남 조 선 인 민 들

## 문익환목사 북남해외공동추모행사 진행

생애 바친 늦봄 문익환목사의 생애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특히 문익환목사가 평양방문기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추진해나갈데 대해 합의한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고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계기였다는데 대해 지적되었다.

또한 문익환목사가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였던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고결한 뜻과 의지를 담은 4.2공동성명이 조국통일의 대강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리행으로 더욱 빛나고있다고 확인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행사참가자들은 이번 추모행사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의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제2의 6.15시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철저한 존중, 리행에 북남관계발전의 길이 있다는것과 민간의 접촉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사적긴장억제에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추모행사에서 최근 일제강점시기 일본군 《위안

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북과 남, 해외 할것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 온 겨레의 뜻을 거족적으로 모아나가기로 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늦봄 문익환목사의 뜻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20돐 추모행사를 계기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결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접촉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만해스님 열반 70돐 북남불교도법회》봉행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열반 70돐 북남불교도법회》가 봉행되었다.

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금강산 신계사, 표훈사의 승려들과 신도들, 남측에서 불교조계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에서는 불교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봉독되었다.

연설자들은 만해스님열반 70돐을 맞으며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그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오늘에 사는 우리 불자들모두의 삶을 비추어보는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의 전체 불교도들은 만해스님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어 우리 민족끼리 6.15자주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위에 기어이 통일이

고 부강번영하는 현세의 이상정도를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발원문에서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북과 남이 돌이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 북남공동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자동으로, 법등으로 삼고 그 실천행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북남불교도들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었다.

본사기자

행하였다.

민주로총 총결기집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는 당국의 쌀시장개방책들을 규탄하는 연화 저지, 로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시국집회가 련이어 진행되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를 벌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며 진압에 날뛰었다.

이 과정에 20여명을 강제련

##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로동탄압 중단하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1만여명 참가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민주로총) 소속 로동자 1만여명이 6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총결기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 신승철이 발언하였다.

그는 《세월》호참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유가족들과 전체 로동자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1 000만명서명운동에 민주로총 조합원 80만명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는 7월 22일 민주로총 정치과업을 성사시키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동안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로동

비롯하여 남조선의 정치풍토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단죄하였다.

같은 남조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재앙을 물고오는 핵심이라고 비난하였다.

김기춘은 청와대의 중심에 들어앉아 인사문제를

중심에 놓고있는 자들을 총리후보자로 내세웠다가 좌절당하자 또다시 정홍원의 류임을 조작하였다고 까발

하였다.

《새로운 총리 한사람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과 김기



전교조에 대한 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결의문은 현 《정권》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조관결을 내림으로써 민주교육실현을 가로막고 지배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말악하고있다고 까뻐했다.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하기 위한 전교조의 25년간의 노력은 결코 중단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의 부당한 관결을 배격하는 투쟁을 전교조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갈데 대해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교조는 정당하다. 로동기본권 쟁취하자!》, 《전교조탄압 저지하고 참교육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전교조 16개 지부 대표단들은 단체에 대한 법외조관결철폐와 교원로조법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